

與 “내일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 공수처법 전문

민주, 5·18왜곡처벌법·공정경제 3법 입법 개시 ‘개혁입법’ 처리 의지 정기국회 내일 종료...국민의힘, 안건 조정 등 저지수단 총동원 결의

연말 정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립 구도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나서자, 이에 야당이 필리버스터(의사 진행방해) 등 저지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서면서 전문이 질게 끌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공식 선언하면 우리는 바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 막바지에 주요 개혁 입법에 마중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이른바 ‘슈퍼위크’로 이번 주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제가 책임지고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띄우면서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막판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대로 처리하

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5·18 역사왜곡처벌법 의결을 강행했고, 오후 법사위와 정부위 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입법 절차도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시도를 거세게 비난하며 모든 저지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보이콧’하며 전면투쟁 결의를 보였다.

우선 본회의에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최대한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법사위 회의실 앞과 국회 로텐더룸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해 여권의 ‘입법 독주’를 비난하는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돼지고 바보인가”라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뒤통지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막아내고 호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서도 “저쪽(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10명, 고용부에 촉구 기자회견

전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지방도시의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에 빠진 도시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경제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현저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2018년 10월 기준, 20대는 2만7953명에서 2020년 9월에는 2만7261명으로 약 3%가 감소했으며, 영암군 또한 2018년 10월 기준, 30대는 5694명에서 2020년 9월에는 4946명으로 약 13%가 감소했다.

이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목포와 영암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위기지역인 목포시의 경우 20년 상반기 고용지표는 전국 77개 시 중 6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포시 고용률은 55.5%로 전남 5개 시 중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끊는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 경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원이(목포)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효과가 가시화되고, 각종 고용지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포, 영암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을 통해 일자리 부족이나 인구 유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와 관련해 이개호·김승남·서삼석·신정훈·김원이·김회재·서동용·소병철·윤재갑·주철현 의원이 건의문에서 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공식 대응 않기로

전국 법관대표회의 안건 부결... “정치적 중립 준수”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일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분’

김종인 ‘탄핵 사과’...장제원 ‘퇴진 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예고한 ‘탄핵 사과’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잡음이 심상치 않다. 김 위원장이 오는 9일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히자, 비대위 체제 자체를 흔들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김 위원장이 사과 주체로서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과 강행 시 비대위 퇴진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사과하러 결정 못하냐”라며 강행 기류여서 진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박영선 42% vs 나경원 33%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차기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와 이데일리가 지난 4~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장관은 18.7%를 기록하며 16.9%인 나 전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7.9%), 조은희 서초구청장(6.7%),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4.3%),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4.2%) 정태래·우상호 민주당 의원(3.5%)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적합한 후보 없음’(7.1%)이나 ‘잘 모르겠다’(21.2%)는 응답이 30% 가까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보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42.3%로 나 전 의원(33.0%)을 앞섰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